

버려진 곳에서 키우는 책마을의 꿈

박대현 | 영월책박물관장

별이 잘 드는 2층 서재에 수천권의 장서를 갖추고 책 속에 파묻혀 살았으면 하던 것이 내 10대 후반의 꿈이었다. 사실 책을 웬만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꿈은 누구나 다 품을 것이다. 다행인지 서재를 갖고 싶었던 나의 꿈은 책박물관으로 격상(?)돼 마침내 1999년에 영월의 한 폐교를 빌려 책박물관을 열게 됐다.

폐교. 말만 들어도 아련한 추억과 함께 애뜻한 정이 묻어 나온다. 한때는 아이들의 북적거림으로 떠들썩했지만 지금은 모두 떠나 황폐해진 곳. 폐교란 말 그대로 문 닫은 학교, 버려진 학교다. 학교만 문 닫은 것이 아니고, 마을까지 문 닫은 것이다. 영월 같은 강원도 산골에서 학교는 그저 배움의 장소가 아니다. 매년 운동회가 열리고, 그날은 마을의 축제날이다. 또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치르던 정치·문화의 1번지다. 이렇듯 학교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 마을의 버팀목 구실을 해왔다. 그런 학교가 폐교됐다면 그 마을 사람들의 심정이 오죽 하겠는가.

어쨌든 지금은 이 문 닫은 학교가 책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꾸며졌

다. 나는 문화적으로 척박한 이곳에 책을 짊어지고 내 발로 찾아왔다. 문화의 씨를 뿌려보겠다며 나의 모든 것을 건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87개의 사립박물관이 있다. 이들 가운데는 대기업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국제적 규모의 박물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평범한 개인이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자신의 전 재산과 일생을 바쳐 꾸려가는 소박한 박물관들이다. 이것들은 겉으로는 비록 초라해보일지 모르지만 독특한 주제가 있는 특수한 박물관들이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설립·운영해야 할 몫을 사재를 들여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기관은 이런 사립박물관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관심과 지원은 커녕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이처럼 사회·문화적으로 국민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박물관을 단지 개인이 세우고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립박물관 설립을 문화를 앞세워 부를 축적하려는 사업의 한 방편쯤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립박물관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지역의 것이고 나라의 것이다.

영월책박물관이 설립된 지 이제 4년. 그동안 우리 박물관에서는 매년 5월에 영월책축제를 세번 열었다. 축제는 퍼포먼스, 음악회, 영화상영, 세미나 등으로 꾸며졌고 올해는 축제 첫날에 약 5~6백명이 참여했다. 앞으로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에 어린이, 문학, 예술 전문서점과 문화예술인 작업실, 화랑, 카페 등을 만들 계획이다. 마을의 버려진 집과 헛간을 고쳐 책마을을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진정 보여주고 싶은 것은 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나는 이것이 문화라고 생각한다. 책이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총권 제326호 | 2002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박천홍

기자 강성민 김정근

차정신 박옥순

사진 김경록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공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우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영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